

일반긴장이론을 통한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의 비행 연구

문병욱* · 신동준**

초 록

이 논문은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하여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폭력비행과 재산비행, 그리고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에는 우선 긴장요인이 포함되었으며, 다음으로 긴장과 비행 사이의 관계에 조건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조건요인, 그리고 이 두 요인들의 상호작용항이 단계적으로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부모와 교사의 폭언 및 체벌과 부정적 삶의 경험은 인문계 고등학생의 폭력/재산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폭언 및 체벌과 가족수입이 재산/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교사의 폭언과 체벌은 학교의 유형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정적 삶의 경험은 인문계 고등학생의 재산비행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 연구의 제한점, 학생지도 시 유의사항, 그리고 비행예방대책에 대해 논하였다.

주제어 : 일반긴장이론, 스트레스, 청소년비행,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부모와 교사의 폭언과 체벌

* University of Texas at San Antonio 형사사법학과 조교수

**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I. 머리말

청소년 시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낀 인생의 중요한 과도기이다. 이러한 시기적 특성상 청소년들은 많은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비행행동이다. 청소년기의 비행행동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청소년 개인의 차원에서 이 시기의 비행행동이 이후의 인생을 상당 부분 결정할 수도 있다. 사실 대개 청소년은 이런 저런 사소한 비행들을 저지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비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화될 경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경우, 이들은 나중에 '경력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학적으로도 청소년기의 비행 연구는 매우 중요한 분야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시점에서 크게 인문계와 실업계라는 두 갈래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는 입학 당시 구성원의 특성에서부터 교육과정 및 교육목표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즉,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환경적 맥락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경험이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사이의 두드러진 차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은 학교생활, 가정생활, 자아관, 진로계획, 근로경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이를 보인다(나승일·마상진, 2005). 경험적 연구들은 자아정체감(류청렬, 1999)과 자아개념(정수자, 1999), 그리고 자아존중감(정기원, 2006) 등에서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해 왔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이며, 학교 규범도 더 많이 어기는 것으로 보고된다(문호영·문성호, 2007).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서 이성교제 경험과 성관계 경험, 그리고 음란매체 접촉 경험이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보고되며(김혜원·이해경, 2002), 음주와 흡연 행위도 더 많이 하고(황성현, 2006), 환각제와 마약류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허성욱, 2006).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인터넷 섹스중독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으며(이상준, 2003), 인터넷 게임중독 증상의 빈

도 또한 유의미하게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남영옥·이상준, 2006). 또한 여자고등학생의 경우 실업계 학생이 인문계 학생보다 가출경험이 약 2배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이종화 외, 2006).

이와 같이 비행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될 수 있는 여러 영역에서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편이다. 하지만,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청소년의 삶의 경험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이를 비행에서의 차이와 원인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은 그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일반긴장이론에 의하면, 다양한 삶의 부정적 경험(예를 들어, 부모와 교사의 정서적 육체적 처벌, 집단 따돌림, 차별 대우, 부모의 이혼/별거, 범죄피해 경험 등)은 청소년들에게 긴장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분노와 불안, 그리고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낳으며, 이것이 청소년의 비행으로 연결된다(Agnew, 1985; 1992). 이 연구에서는 일반긴장이론을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구분되는 두 청소년 집단의 비행행동에 적용시켜보고, 그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론 검증을 시도함과 동시에, 인문계와 실업계의 차이에 따른 이론의 차별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과 기존 연구 검토

1. 일반긴장이론

Agnew(1985; 1992)의 일반긴장이론은 Merton(1938; 1957)의 아노미이론에서 언급되는 고전적 의미의 '긴장'을 개념적으로 확대하여 청소년 비행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일반화한 이론이다. Agnew는 실제 청소년들이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며, 그러한 목표는 경제적 성공 내지는 직업적 성취와 같은 장기적 목표라기보다는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목표라는 점을 환기시킨다. 이러한 목표에서는 계급적인 차이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이 갖는 적용 범주의 계급적 한계를 넘어서서 중산층 청소년

년의 비행도 설명할 수 있는 일반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Agnew는 비행의 원인이 되는 긴장의 원천을 1) 목표달성의 실패, 2) 긍정적 자극의 소멸, 3) 부정적 자극의 발생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확대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 긴장의 원천인 목표달성의 실패는 열망과 기대간의 격차(예를 들어, 대학에 가길 열망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 기대와 실제 성취 사이의 격차(예를 들어, 대학에 갈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못 가게 된 것), 그리고 공정한 결과(예를 들어, 나보다 못한 아이들이 대학에 갔으나 자신은 못간 경우),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다시 세분화 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천인 긍정적 자극의 소멸은 청소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상실되는 사건으로 부모의 사망이나 친구와의 이별 등과 같은 일상적인 삶에서 겪는 사건이 예로 제시된다. 마지막 세 번째 원천인 부정적 자극의 발생은 부모로부터의 학대, 친구들의 괴롭힘, 교사의 폭언과 체벌 등 청소년에게 고통을 주는 사건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상황들은 청소년에게 긴장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분노와 불안, 그리고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낳으며, 이것이 청소년의 비행을 유발한다는 것이 Agnew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 이론은 긴장에 노출되어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모든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즉 일정한 조건에서 청소년은 긴장에 대해 비행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비행적 대처를 억제하는 정도가 낮고 비행적이지 않은 대처를 억제하는 정도가 높을 때나, 청소년이 비행적 대처에 친화적인 성향이 있을 때와 같은 조건에서 비행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Agnew는 비행적 대처 성향과 비행적 대처의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적 변인으로 자아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정도, 사회통제의 정도, 비행친구와의 접촉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을 예로 들고 있다. 따라서 일반긴장이론은 긴장 요인의 주효과를 상정하면서, 사회통제이론이나 차별접촉이론 등과 같이 다른 주요 범죄학이론들에서 제시되는 요인은 조건적 변인으로 활용하는 이론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 긴장요인의 효과

경험적 연구들은 다양한 형태의 긴장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

고하고 있다(Agnew and White, 1992; Paternoster and Mazerolle, 1994; Agnew and Brezina, 1997; Hoffmann and Miller, 1998; Mazerolle and Maahs, 2000; Piquero and Sealock, 2000; Broidy, 2001; Agnew et al., 2002; Moon and Morash, 2004; 이성식, 1999; 2003; 2004; 문병욱·황혜원, 2006). 여러 연구에서 긴장은 다양한 형태로 측정되어졌다. Agnew와 White(1992)는 삶에서 부정적인 사건이나 그 외 고민거리, 어른과의 부정적 관계, 부모의 다툼, 거주지역의 문제 등으로 긴장을 측정하였고, 이러한 긴장요인이 청소년의 비행과 약물 사용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좀 더 최근의 연구에서는 6개의 긴장 변인 중 가족 긴장, 부모의 감정통제 실패, 학교에 대한 혐오, 그리고 거주지역 긴장이 청소년의 비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Agnew et al., 2002).

Paternoster와 Mazerolle(1994)는 미국 전국청소년조사(National Youth Survey)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른과의 부정적 관계, 친구와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스트레스적인 일상 경험이 청소년의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Hoffmann과 Miller(1998)의 연구 역시 종단적 데이터인 가족건강연구(Family Health Study)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일상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부정적인 사건을 겪은 청소년이 재산비행과 폭력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 보스턴 지역 고등학생의 패널 연구에서도 긴장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스트레스적인 일상 경험이 공격적인 형태의 비행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Aseltine et al., 2000). 그러나 공격적이지 않은 형태의 비행과 마리화나 사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갖지 않음을 이 연구는 또한 보고하였다.

3. 조건요인의 효과

조건적 효과에 대한 경험적 결과들은 긴장요인의 주효과에 대한 결과들에 비해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경향이 발견된다. Agnew와 White(1992)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효능감과 비행친구가 조건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긴장

1) 부정적인 사건의 예로 가족과 친구의 사망이나 질병 및 사고, 학교나 거주지의 변화,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가족의 경제적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가족 관련 사건으로 긴장을 측정하였다.

이 비행과 마약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강해지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그러한 효과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3년간의 가족건강연구(Family Health Study) 종단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자아효능감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비행친구의 조건적 효과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Hoffmann and Miller, 1998).

미국 전국청소년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좀 더 최근의 연구에서는 비행친구, 일탈적 신념, 비행 친화적인 행동 성향의 조건적 효과가 발견되었다(Mazerolle and Maahs, 2000). 청소년의 성격적 특성이 갖는 조건적 효과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Agnew et al., 2002). 이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정서성(emotionality)과 낮은 제어력으로 특징 지워지는 성격을 갖는 청소년이 긴장에 대해 비행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²⁾ 이 연구는 또한 학교에 대한 애착이 낮은 청소년이 긴장을 겪을 때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도 보고하였다.

4. 우리나라 청소년에 대한 연구

국내 연구에서도 가족긴장, 학교긴장, 친구긴장, 지역긴장 등이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보고된다(이성식, 1999; 2003; 2004).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긴장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측정해서, 부모와 교사의 폭언과 체벌이 폭력비행과 재산비행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킴을 발견하였다(문병욱·황혜원, 2006). 또한 이 연구에서는 가족과 관련된 부정적인 삶의 경험이 지위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도 부모에 대한 애착이 적을수록, 그리고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긴장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 폭력비행으로 결과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성식, 2003).³⁾ 또 다른 연구에서도 불량급우와의 교제가 교

2) 이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성/낮은 억제력이라는 척도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상당 부분 유사한 차원으로서 충동성, 산만함, 성미 급함 등으로 측정되었다.

3) 이 연구에서는 부정적 감정과 조건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보고 있다. 이러한 분석 전략이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Agnew의 주장이나 기존 연구들의 일반적인 입장은 부정적 감정에 인과경로 상 선행하는 긴장요인과 조건요인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의 폭언과 체벌, 부정적 삶의 경험, 그리고 시험성과 상호작용하면서 비행에 대해 조건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문병욱·황혜원, 2006).

이상의 연구결과들로 볼 때 다양한 형태의 긴장요인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몇몇 기존 연구에서는 일반긴장이론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행을 이해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은 다양한 영역(긴장요인의 경험, 학교생활, 가정생활, 자아관, 진로계획, 근로경험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이러한 차이가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긴장요인과 조건요인에서의 차이가 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는 Agnew의 일반긴장이론이 우리나라의 인문계와 실업계 학생의 비행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이해하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반긴장이론을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구분된 두 청소년 집단의 비행행동에 대한 설명에 적용시켜 볼 것이다. 첫째로, 이 연구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간에 긴장요인과 조건요인,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비행행동에서 차이가 발견되는지를 알아본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실업계 학생이 인문계 학생에 비해 비행의 원인이 되는 긴장요인과 함께, 비행적 대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비행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둘째로, 긴장요인과 조건요인이 인문계와 실업계 학생의 다양한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 집단별로 세 단계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대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02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로부터 얻어졌다. 대구 소재 77개 고등학교 가운데 남자 인문계 학교, 여자 인문계 학교, 남자 실업계 학교, 그리고 여자 실업계 학교를 층화임의표집 (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design)절차에 따라 각각 한 학교씩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설문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학교에서 3개 반이 역시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각 학교로부터 연구 조사 허가를 받은 다음, 조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를 주지시켰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와 응답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네 학교 중 두 학교에서는 연구자들 중 한명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지 못한 다른 두 학교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집하였다. 설문지 배포 전에 학생들에게 자발적 참여와 응답의 진실성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1시간이 주어졌다.

네 개의 고등학교에 총 420개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이들 설문지 중에서 385개의 사용 가능한 설문지가 수집되었다. 따라서 최종 연구대상자는 183명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남자 67명, 여자 116명)과 202명의 인문계 학생(남자 103명, 여자 9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률은 92%였다. 최종적으로 결측치(missing values)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총 298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변인 측정

1) 긴장요인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일반긴장이론에서는 긴장요인을 목표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존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족문제, 부모의 폭언과 체벌, 학교 내 선생님/친구와의 갈등 또는 긴장, 성적/육체적/정서적 체벌, 가족 수입과 관련된 재정적 문제, 범죄 피해 경험과 같은 긴장요인들이 비행에 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Agnew(2001)는 최근 그의 논문에서 비행에 특히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긴장요인의 조건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긴장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그 정도가 매우 심할 때, 낮은 사회통제와 연관될 때, 그리고 범죄적 대처에 대한 압력이나 동기부여를 받을 때 특히 범죄와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러한 이론적 고려에서 이 연구에서는 목표달성 실패와 부정적 자극의 존재에 해당하는 긴장요인에 주목하여 그 영향을 조사하였다. 목표달성 실패와 관련된 긴장요인으로는 가족 수입이 해당된다. 자본주의사회의 논리를 고려해 볼 때 물질적 필요가 청소년에게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즉 열망과 기대간의 격차, 그리고 기대와 실제 성취 사이의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 청소년은 높은 수준의 긴장을 경험할 수 있다. 부정적 긴장요인으로 기존의 긴장 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과 관련된 부정적 삶의 경험(예를 들어, 부모 이혼, 별거, 질병), 부모의 폭언과 체벌, 교사의 폭언과 체벌, 그리고 학업관련 긴장을 주요 긴장요인으로 상정하고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측정하였다.

우선 부정적 삶의 경험은 지난 일 년 동안 부모의 이혼, 별거, 실직,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일을 경험했는지를 측정하는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Cronbach's $\alpha=.39$).⁴⁾ 여기서 사용된 항목들은 Mazerolle(1998)의 연구에서 발췌되었다. 가족문제와 관련된 이러한 사건들은 낮은 사회통제와 특징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긴장요인들로서 이론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된다(Agnew, 2001:335).

Agnew(2001:325)는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을 검토한 후 여러 긴장요인 중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언어적/신체적 폭력이 범죄와 큰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 언어적/신체적 학대 및 폭력은 청소년들에게 부당하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정도가 심한 긴장으로 경험되고, 낮은 사회통제와 연관된다(Agnew, 2001:344). 뿐만 아니라 학대와 폭력에 노출됨으로써 그러한 비행적 태도를 모방하고

4)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 요인은 낮은 알파값을 보인다. 그 이유는 포함된 항목들이 상호 관련이 있다가 보다는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독립적인 사건들을 열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의 긴장은 범죄적 대처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Agnew, 2001:337). 따라서 이 연구에서 부모와 교사의 폭언과 체벌을 중요한 긴장요인으로 다룬다.

부모의 폭언과 체벌은 응답자의 부모가 응답자에게 지난 1년 동안 육설을 하거나, 타인과 부정적으로 비교하거나, 육체적 처벌 또는 폭행을 한 정도를 측정한다(Cronbach's alpha=.89). 부모의 폭언과 체벌은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Piquero와 Sealock(2000)의 연구에서 발췌되었다. 부모의 폭언과 체벌의 정도는 절대 아님(0)에서 10회 이상(4)에 이르는 척도로 측정되었다. 교사의 폭언과 체벌은 지난 한 해 동안 응답자의 교사가 응답자에게 가한 폭언과 체벌의 정도로 측정한다(Cronbach's alpha=.89). 교사의 폭언과 체벌은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항목은 부모의 폭언과 체벌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항목과 거의 유사하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과 관련하여 엄청난 압력과 스트레스를 일상적으로 경험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긴장이론을 검증하는 연구에서 학업 관련 긴장을 특히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모형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학업과 관련된 긴장은 응답자가 지난 한 해 동안 공부와 관련해서 부모나 교사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정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75). 구체적으로 이 요인은 부모와 교사가 공부를 너무 강조하는지와 자신이 공부에 대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지를 묻는 세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족 수입은 응답자 부모의 월 평균 수입을 측정하며 단일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조건요인

긴장요인과 조건요인간의 상호작용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기존 이론과 경험적 연구에 근거하여 다양한 조건요인(conditioning factors)을 상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부모 또는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 학교에 대한 애착, 부모감독, 비행친구와의 교제, 이렇게 다섯 가지 조건요인을 측정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긴장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비행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개인적 자원으로 볼 수 있다. 이 변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와 장단점 등을 측

정하는 총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Cronbach's $\alpha=.76$). 측정을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한다,”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다고 느낀다,” “나는 나의 좋은 점을 알고 있다,” 등과 같은 항목들이 사용되었다.

사회통제와 관련되는 조건요인으로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선생님과의 친밀한 관계, 학교에 대한 애착, 부모님 감독, 이렇게 네 개의 변인을 상정하였다.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는 총 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와 부모간의 사랑, 신뢰감, 서로에 대한 이해 등을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69$). 예를 들면, “나의 부모는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신다,” “나의 부모는 나에게 사랑과 흥미를 보이신다,” “나의 부모는 내가 최선을 다해 공부한다고 생각하신다,” 등이다.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는 교사와 응답자간의 신뢰감 또는 서로에 대한 이해 정도를 측정하며,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사용된 항목들과 같은 네 항목이 사용되었다(Cronbach's $\alpha=.88$). 학교에 대한 애착은 응답자가 학교생활에 만족하는지, 또는 지루해 하는지 등에 대한 생각을 측정한다(Cronbach's $\alpha=.80$). 학교에 대한 애착은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Hoffmann과 Su(1997)의 연구에서 발췌되었다. 부모 감독은 총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응답자의 부모가 응답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Cronbach's $\alpha=.81$).

비행친구와의 교제는 지난 한 해 동안 응답자와 친한 친구들이 폭력, 절도, 불법 약물 사용 등과 같은 비행행동을 한 정도를 측정한다(Cronbach's $\alpha=.85$). 비행친구와의 교제는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Mazerolle와 Maahs(2000)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발췌되었다. 이 조건요인은 차별접촉이론과 연관되며, 긴장에 대한 비행적 대처로의 압력이나 동기부여를 낳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3) 종속변인

기존의 실증적 연구에서는 긴장요인이 비행의 종류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azerolle and Piquero, 1997; Piquero and Sealock, 200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긴장요인이 비행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해 폭력비행, 재산비행, 지위비행,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비행이 종속변인으로 사용되었다.

폭력비행은 지난 한 해 동안 응답자가 폭력이 동반된 비행에 참여한 정도로 측정된다. 이 변인은 총 일곱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Cronbach's alpha=.71), 이들 항목은 Mazerolle와 동료들(2000)의 연구에서 발췌되었다. 구체적으로 “집단 패싸움,” “차 부수기,” “급우 구타” 등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재산비행 변인은 지난 한 해 동안 응답자가 절도 행위를 한 정도를 측정한다(Cronbach's alpha=.59). 이 변인은 총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구체적으로 “만원에서 5만원 이하의 가치가 있는 물건 훔치거나 훔치려고 시도한 행위,” “5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시도한 행위,” 그리고 “학교 도서관이나 교실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시도한 행위”의 정도를 묻는 문항들이 그것이다. 이들 항목 역시 Mazerolle et al. (2000)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발췌되었다. 지위비행은 응답자가 음주, 흡연, 가출 등과 같은 행위를 한 정도로 측정된다. 지위비행은 총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Cronbach's alpha=.66).

이들 세 개의 종속변인의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닌 관계로 (positively skewed)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종속변인을 로그로 변화하여 다중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간의 변인들 평균값 비교

	인 문 계			실 업 계			t-값
	평균	표준편차	범위	평균	표준편차	범위	
긴장요인							
부정적 삶의 경험	0.23	0.54	0-5	0.50	0.84	0-4	-3.22**
부모의 폭언과 체벌	3.33	5.13	0-26	3.23	6.47	0-38	0.16
교사의 폭언과 체벌	4.72	6.83	0-50	3.85	5.80	0-40	1.16
학업관련 긴장	8.51	2.02	3-12	6.87	2.09	0-12	6.90***
가족수입	3.53	1.39	1-6	4.20	1.45	1-6	-3.99***
조건요인							
부모와의 친밀관계	18.13	3.06	7-24	17.22	3.09	6-24	2.53*
교사와의 친밀관계	22.43	3.72	11-32	21.20	3.79	8-31	2.81**
자아존중감	18.95	4.15	8-28	17.27	4.17	7-27	3.46**
학교애착	17.53	4.26	7-28	15.60	3.92	7-25	4.03***
부모감독	5.23	1.79	2-8	4.82	1.90	2-8	1.91
비행친구교제	6.66	5.31	0-30	7.15	6.05	0-34	-0.74
비행							
폭력비행	0.52	1.23	0-10	0.42	1.38	0-14	0.77
재산비행	0.15	0.68	0-7	0.10	0.55	0-4	0.71
지위비행	2.42	2.73	0-12	3.50	3.75	0-16	-2.87**

IV. 분석 결과

1. 각 변인의 평균값 비교

우선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사이에 긴장요인과 조건요인, 그리고 비행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테스트를 하였다. 긴장요인의 평균값 차이에서는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부정적인 삶의 경험을 많이 하고 가족 수입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에 비해 학업으로 인한 긴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와 교사의 폭언/체벌에 대해서는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요인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부모 및 교사와의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아존중감과 학교에 대한 애착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통제나 비행친구와의 교제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의 정도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으며,⁵⁾ 단지 실업계 학생이 인문계 학생에 비해 지위비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폭력비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인문계

	모형 1	모형 2	모형 3
긴장요인			
부정적 삶의 경험	0.05(0.07)	0.01(0.02)	
부모의 폭언과 체벌	0.02(0.24)**	0.02(0.19)*	
교사의 폭언과 체벌	0.03(0.41)***	0.02(0.27)**	
학업관련 긴장	-0.04(-0.02)	0.04(0.00)	
가족수입	0.02(0.06)	0.04(0.12)	
전체긴장요인			0.15(0.31)***

5) 이는 인문계 고등학교 표본에서보다 실업계 고등학생 표본에서 여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폭력비행의 경우 실업계 여학생과 인문계 여학생의 평균값이 각각 1.095와 .90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남학생들의 경우에도 1.166과 1.014로 역시 그러하다. 재산비행의 경우에도 여학생의 경우 실업계 .050과 인문계 .092, 남학생의 경우 .113과 .091로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분석모형에 성별 변인을 포함시켜 그 효과를 통제했을 때에도 회귀분석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 1	모형 2	모형 3
조건요인			
부모와의 친밀관계		-0.01(-0.09)	-0.05(-0.10)
교사와의 친밀관계		-0.01(-0.05)	-0.04(-0.09)
자아존중감		0.00(0.03)	0.02(0.04)
학교애착		0.00(0.03)	0.02(0.04)
부모감독		0.02(0.06)	0.02(0.04)
비행친구교제		0.03(0.32)***	0.15(0.29)***
상호작용			
긴장*부모친밀			-0.02(-0.04)
긴장*교사친밀			0.02(0.06)
긴장*자아존중감			-0.00(-0.01)
긴장*학교애착			-0.00(-0.00)
긴장*부모감독			0.05(0.11)
긴장*비행친구교제			0.06(0.21)
R ²	0.30	0.38	0.38

* p<.05, ** p<.01, *** p<.001 ()안은 β값

2. 폭력비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각 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각 집단별로 세 단계의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여섯 가지의 긴장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다음으로 여섯 종류의 조건요인이 추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장요인과 조건요인의 상호작용항이 분석모형에 추가 되었다.

<표 3> 폭력비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실업계

	모형 1	모형 2	모형 3
긴장요인			
부정적 삶의 경험	-0.01(-0.02)	-0.01(-0.01)	
부모의 폭언과 체벌	0.04(0.06)	0.01(0.09)	
교사의 폭언과 체벌	0.03(0.42)***	0.02(0.30)**	
학업관련 긴장	0.01(0.05)	-0.02(-0.01)	
가족수입	-0.00(-0.01)	0.00(0.00)	
전체긴장요인			0.86(0.20)

	모형 1	모형 2	모형 3
조건요인			
부모와의 친밀관계		0.01(0.09)	0.02(0.05)
교사와의 친밀관계		-0.01(-0.05)	-0.03(-0.06)
자아존중감		-0.01(-0.07)	-0.02(-0.04)
학교애착		-0.01(-0.08)	-0.04(-0.09)
부모감독		-0.01(-0.04)	-0.02(-0.05)
비행친구교제		0.01(0.17)	0.04(0.10)
상호작용			
긴장*부모친밀			0.05(0.20)
긴장*교사친밀			-0.02(-0.06)
긴장*자아존중감			-0.07(-0.15)
긴장*학교애착			-0.13(-0.32)**
긴장*부모감독			0.07(0.17)*
긴장*비행친구교제			0.04(0.13)
R ²	0.20	0.24	0.41

* p<.05, ** p<.01, *** p<.001 ()안은 β값

표 2와 3은 폭력비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계열별로 보여주고 있다. 표 2의 모형 1이 보여주는 결과에 의하면 일반긴장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부모와 교사의 폭언과 체벌이 인문계 학생의 폭력 비행에 상당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또한 표 3의 모형 1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폭언과 체벌은 실업계 학생의 폭력비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섯 개의 조건요인이 다중회귀분석에 포함되었다. 앞서 모형들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표 2와 3의 모형 2 결과는 조건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부모와 교사의 폭언과 체벌이 인문계 고등학생의 폭력비행에, 그리고 교사의 폭언과 체벌이 실업계 학생의 폭력비행에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6개의 조건요인 중에서는 비행친구와의 교제만이 인문계 학생의 폭력비행에 유의미한 정적(+) 영

6) 부모의 폭언과 체벌 변인의 경우 사회유대를 반영하는 변인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와의 친밀관계와 부모감독과 같은 사회통제 변인이 추가되어 그 효과가 통제되는 모형 2에서도 부모의 폭언과 체벌의 효과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일반긴장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개의 조건요인 중 어느 것도 실업계 학생의 폭력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 긴장요인과 조건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 분석 단계로 긴장요인과 조건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5개의 긴장요인과 6개의 조건요인 간에는 총 30개의 상호작용 요인이 구성될 수 있다. 하지만, VIF(variance inflation factor)와 condition Index의 수치 조사 결과,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마지막 모형들에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기서는 각각의 긴장요인을 모두 합친 하나의 전체긴장요인을 구성한 후 이 변인과 6개의 조건요인과의 총 6개의 상호작용항을 만들었다. 다중공선성의 문제점을 더욱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체긴장요인 변인과 조건요인 변인을 표준화(centering)시킨 후 상호작용항을 만들었다(Aiken and West, 1991).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VIF와 condition Index의 수치를 조사해 본 결과 다중공선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의 모형 3 결과를 보면 예측과 같이 전체 긴장요인은 인문계 학생의 폭력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일반 긴장이론의 예측과는 달리 6개의 상호작용항 중 어느 것도 인문계 학생의 폭력 비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또한 표 3의 모형 3 결과에 따르면 실업계 학생의 경우 전체긴장요인은 폭력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 6개의 상호작용항 중 2개가 폭력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긴장이론의 예측과 같이, 긴장을 경험한 실업계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애착이 큰 경우에는 폭력비행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론적 예측과는 달리, 긴장을 경험한 학생들이 부모님 통제를 받을 경우 오히려 폭력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높은 수준의 긴장을 겪고 있을 때 부모의 통제는 오히려 비행을 부추길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된다.

3. 재산비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 4와 5는 재산비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긴장요인만이 포함된 모형 1의 결과에 의하면,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부정적인 삶의 경험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교사의 폭언과 체벌을 많이 경험할수록 재산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학생의 경우에도 교사의 폭언과 체벌이 재산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일반긴장이론의 예측과는 달리 부모의 폭언과 체벌은 실업계 학생의 재산비행 가능성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의 조건요인이 포함되어 그 효과가 통제되는 표 4의 모형 2 결과를 보면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모형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교사의 폭언과 체벌의 효과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여섯 개의 조건요인이 포함된 모형 2의 결과에 의하면 6개의 조건 요인 중에서 오직 비행친구와의 교제만이 인문계 학생의 재산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5에서는 표 3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6개의 조건 요인 중 어느 것도 실업계 학생의 재산비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지 않다.

<표 4> 재산비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인문계

	모형 1	모형 2	모형 3
긴장요인			
부정적 삶의 경험	0.16(0.30)***	0.14(0.25)**	
부모의 폭언과 체벌	-0.01(-0.09)	-0.01(-0.14)	
교사의 폭언과 체벌	0.01(0.24)**	0.00(0.10)	
학업관련 긴장	-0.00(-0.02)	0.01(0.04)	
가족수입	-0.02(-0.11)	-0.02(-0.07)	
전체긴장요인			0.01(0.05)
조건요인			
부모와의 친밀관계		-0.01(-0.10)	-0.02(-0.07)
교사와의 친밀관계		0.01(0.17)	-0.01(-0.03)
자아존중감		-0.00(-0.05)	0.02(0.07)
학교애착		-0.01(-0.09)	-0.00(-0.02)
부모감독		0.01(0.03)	0.00(0.01)
비행친구교제		0.02(0.41)***	0.09(0.30)***

	모형 1	모형 2	모형 3
상호작용			
긴장*부모친밀			-0.00(-0.02)
긴장*교사친밀			0.06(0.35)**
긴장*자아존중감			-0.03(-0.15)
긴장*학교애착			-0.02(-0.11)
긴장*부모감독			-0.00(-0.01)
긴장*비행친구교제			0.07(0.44)***
R ²	0.15	0.30	0.42

* p<.05, ** p<.01, *** p<.001 ()안은 β값

<표 5> 재산비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실업계

	모형 1	모형 2	모형 3
긴장요인			
부정적 삶의 경험	0.01(-0.02)	-0.00(-0.01)	
부모의 폭언과 체벌	-0.01(-0.19)*	-0.01(-0.21)*	
교사의 폭언과 체벌	0.02(0.41)***	0.01(0.31)**	
학업관련 긴장	0.02(0.13)	0.01(0.08)	
가족수입	-0.00(-0.01)	0.00(0.00)	
전체긴장요인			-0.01(-0.04)
조건요인			
부모와의 친밀관계		-0.00(-0.04)	-0.01(-0.02)
교사와의 친밀관계		-0.00(-0.01)	-0.01(-0.05)
자아존중감		-0.00(-0.02)	-0.00(-0.01)
학교애착		-0.01(-0.09)	-0.03(-0.10)
부모감독		0.00(0.01)	0.00(0.01)
비행친구교제		0.01(0.18)	0.04(0.17)*
상호작용			
긴장*부모친밀			0.02(0.16)
긴장*교사친밀			-0.02(-0.11)
긴장*자아존중감			0.02(0.07)
긴장*학교애착			-0.03(-0.11)
긴장*부모감독			0.00(0.00)
긴장*비행친구교제			0.05(0.33)**
R ²	0.17	0.21	0.33

* p<.05, ** p<.01, *** p<.001 ()안은 β값

두 표의 모형 3 결과는 긴장과 비행친구교제의 상호작용항이 두 집단에서 공통으로 재산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긴장을 경험한 학생들이 비행친구들과 어울릴 경우 재산비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수록 긴장요인이 재산비행에 미치는 정적 효과가 오히려 강해진다는 예상외의 결과가 나타났다.

4. 지위비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 6과 7은 지위비행을 종속변인으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모형 1에서는 앞서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폭언과 체벌이 인문계 학생과 실업계 학생의 지위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폭언과 체벌 또한 실업계 학생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지위비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인문계

	모형 1	모형 2	모형 3
긴장요인			
부정적 삶의 경험	0.08(0.06)	0.00(0.00)	
부모의 폭언과 체벌	0.02(0.15)	0.01(0.07)	
교사의 폭언과 체벌	-0.03(0.30)***	0.01(0.11)	
학업관련 긴장	-0.04(-0.10)	-0.03(-0.08)	
가족수입	-0.04(-0.07)	0.00(0.00)	
전체긴장요인			-0.05(-0.07)
조건요인			
부모와의 친밀관계		-0.01(-0.05)	-0.07(-0.09)
교사와의 친밀관계		-0.05(-0.27)**	-0.19(-0.25)*
자아존중감		0.01(0.03)	0.01(0.02)
학교애착		0.01(0.03)	0.02(0.03)
부모감독		0.02(0.04)	0.03(0.03)
비행친구교제		0.05(0.35)***	0.31(0.38)***

	모형 1	모형 2	모형 3
상호작용			
긴장*부모친밀			-0.03(-0.05)
긴장*교사친밀			-0.04(-0.09)
긴장*자이존중감			0.02(0.04)
긴장*학교애착			0.02(0.04)
긴장*부모감독			-0.01(-0.01)
긴장*비행친구교제			0.04(0.08)
R ²	0.15	0.32	0.32

* p<.05, ** p<.01, *** p<.001 ()안은 β값

<표 7> 지위비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실업계

	모형 1	모형 2	모형 3
긴장요인			
부정적 삶의 경험	0.17(0.16)	0.14(0.13)	
부모의 폭언과 체벌	-0.03(0.25)**	0.02(0.14)	
교사의 폭언과 체벌	0.03(0.17)*	0.01(0.05)	
학업관련 긴장	0.04(0.09)	0.02(0.04)	
가족수입	-0.10(-0.17)*	-0.10(-0.17)*	
전체긴장요인			0.13(0.15)
조건요인			
부모와의 친밀관계		-0.04(-0.15)	-0.16(-0.19)
교사와의 친밀관계		-0.01(-0.03)	-0.02(-0.02)
자이존중감		-0.01(-0.03)	0.00(0.00)
학교애착		-0.02(-0.10)	-0.13(-0.14)
부모감독		-0.07(-0.16)	-0.14(-0.16)
비행친구교제		0.03(0.21)*	0.20(0.24)**
상호작용			
긴장*부모친밀			0.00(0.01)
긴장*교사친밀			0.02(0.02)
긴장*자이존중감			0.03(0.03)
긴장*학교애착			-0.11(-0.13)
긴장*부모감독			-0.03(-0.03)
긴장*비행친구교제			-0.07(-0.13)
R ²	0.23	0.35	0.31

* p<.05, ** p<.01, *** p<.001 ()안은 β값

그러나 조건요인이 통제된 각 표의 모형 2에서는 이러한 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모두 사라졌다. 표 7의 모형 2에 따르면 객관적 긴장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수입은 실업계 고등학생의 지위비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수입이 낮을수록 지위비행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이 효과는 조건요인이 통제된 모형 3에서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모형 2의 결과에 의하면, 조건요인들 중 비행친구와의 교제는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두 집단 모두에서 지위비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교사와 친밀한 관계에 있을수록 지위비행을 할 가능성이 낮음을 표 6은 보여준다. 앞서의 결과들과는 달리 지위비행의 경우 6개의 상호작용항 중 어느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V. 맺음말

이상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행에 대해서도 일반긴장이론의 가설들이 부분적으로 지지됨을 보여준다. 그리고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서 예상대로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사이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행의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우선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서 지위비행을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위비행에서 나타나는 계열별 차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도 보고되고 있다(예를 들어, 김혜원·이해경, 2002; 황성현, 2006; 이종화 외, 2006).

다음으로 긴장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차이점과 함께 공통되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폭언과 체벌의 경우에는 비행유형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발견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문계와 실업계 모두에서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의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부모의 폭언과 체벌을 많이 경험할수록 인문계 고등학생은 폭력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의 가혹한 체벌이 폭력비행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기존 연구의 보고와 일관된 결과이다(이성식, 2001).⁷⁾ 교사의 폭언과 체벌은 인

문계 학생의 경우에는 폭력비행에, 실업계 학생의 경우에는 폭력비행과 재산비행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정에서의 폭언과 체벌뿐만 아니라 교사의 폭언과 체벌도 학교의 유형에 상관없이 비행 유발적인 중요한 긴장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정적 삶의 경험은 인문계 고등학생의 재산비행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비행 유형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모든 비행 유형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긴장요인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은 부모의 폭언과 체벌, 가족수입, 부모와의 친밀 관계, 부모님 통제 등, 부정적 삶의 경험과 연관될 수 있는 요인이 모형에서 통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객관적 형태의 긴장요인으로 볼 수 있는 가족수입 변인도 실업계 고등학생의 지위비행에서만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었다.

흥미롭게도 학업관련 긴장은 인문계 고등학생 집단과 실업계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어떠한 유형의 비행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특히 인문계 고등학생이 학업과 관련해서 겪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고려해 볼 때 의외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Moon et al., forthcoming), 이는 시험성적과 관련된 긴장이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특히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을 통해서 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건요인 중에서는 비행친구와의 교제가 특히 인문계 고등학생의 비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비행친구와 교제를 많이 할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모든 유형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지위비행에서만 비행친구 교제의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생보다는 인문계 고등학생이 비행친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긴장이론의 관점에서 중요한 효과는 비행친구의 조건적 효과인데, 이 효과는 재산비행에 대해서만 나타났다.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모두 비행친구와

7) 서울 소재 고등학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 사회통제/사회유대이론, 일반긴장이론, 그리고 기회이론에 근거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가정에서의 가혹한 체벌이 부정적 감정을 통해서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긴장이론의 인과경로가 우세함을 지적하였다.

많이 교제할수록 긴장요인이 재산비행 가능성을 높이는 정도가 더 강해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다른 조건적 효과도 발견되었는데, 우선 인문계 고등학생은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수록 지위비행을 덜 함을 분석 결과는 보여준다. 폭력비행의 경우에는 학교 애착의 조건적 효과가 발견되었다. 학교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폭력비행에 대한 긴장요인의 효과가 더 강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효과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만 한정되었다. 일반긴장이론에서 조건적 효과와 관련된 인과론적 설명이 비중에 다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조건적 효과에 대한 증거는 분석 결과 제한적으로만 발견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일관된 조건적 효과가 보고되지 않는 경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하여 긴장요인, 조건요인, 그리고 긴장요인과 조건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다양한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일반긴장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정적 감정(예를 들어, 분노와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부정적 감정이 긴장요인과 비행 간의 매개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긴장요인이 부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과 부정적 감정이 다양한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긴장요인이 부정적 감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긴장이론의 예측과는 달리,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부정적 감정의 경험과 상관없이 긴장요인이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부정적 감정을 측정하지 않은 제한점은 있지만 일반긴장이론의 핵심적 가설인 긴장요인의 효과와 긴장요인과 조건요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조사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횡단적 자료를 이용한 관계로 긴장요인과 조건요인, 그리고 비행행동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일반긴장이론의 주요 변인 간의 인과관계, 특히 부모와 교사의 폭언과 체벌이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종단적 자료를 사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제한된 긴장요인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Agnew(2001)는 다

양한 긴장요인 중에 부모의 학대, 돈을 위해 학업 중 일을 하여야 하는 경우, 노숙(homeless), 범죄피해 경험, 육체적/정서적 학대, 차별대우, 그리고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등이 비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이러한 긴장요인들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물론 표본이 대구지역에 한정되었고 표본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에 대해 일반화 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학생지도에 참고할만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 모두 학업과 관련된 긴장은 비행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사의 폭언 및 체벌과 비행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는 학업에 대한 강조가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특히 교사의 비인간적인 학생지도 및 처벌 방법이 학생들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둘째, 비행친구와의 교제는 특히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에 비행 가능성을 높이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긴장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비행친구들과 어울릴 경우 학교유형에 상관없이 재산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학생지도에 고려할 사항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와 학교에 대한 애착도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학생지도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 대한 애착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혜원·이해경(2002). 고등학생들의 성행동 경험 분석: 성별, 학교별, 거주지별 비교. *청소년학연구*, 제9권 제1호, pp. 247-272.
- 나승일·마상진(2005). 실업계 고등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을 판별하는 변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7권 제4호, pp. 61-80.
- 남영옥·이상준(2006).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이 공포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보상효과와 완화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2호, pp. 143-165.
- 류청렬(1999). 인문계와 실업계 학생별로 본 자아정체감과 비행충동의 관계. *이동교육*, 제8권 제2호, pp. 175-187.
- 문병옥·황혜원(2006). Agnew의 일반긴장이론을 통한 한국 청소년의 비행 이해. *이동권리연구*, 제10권 제2호, pp. 127-150.
- 문호영·문성호(2007). 교사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2호, pp. 167-186.
- 이상준(2003). 인터넷 섹스중독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5권, pp. 341-364.
- 이성식(1999). 청소년범죄에 있어 긴장과 통제: 확대된 두 이론의 검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8호, pp. 191-214.
- 이성식(2001). 가정에서의 체벌과 청소년폭력비행. *교정연구*, 제12호, pp. 235-261.
- 이성식(2003). 청소년폭력비행에 있어 일반긴장이론의 검증: 상황론적 논의를 통해.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pp. 85-105.
- 이성식(2004). 청소년들의 긴장, 부정적 감정의 경험과 사이버공간에서의 비행: 남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호, pp. 273-299.
- 이종화·김경희·김희영·정혜경(2006). 여자 고등학생의 가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3호, pp. 161-179.
- 정기원(2006).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1호, pp. 165-190.
- 정수자(1999). 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생의 자아개념의 차이. *교육심리연구*, 제13권 제3호, pp. 307-329.

- 허성욱(2006).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2호, pp. 1-28.
- 황성현(2006). 낮은 자아통제감, 친구집단요인, 부모요인이 청소년 약물사용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5-1호, pp. 129-154.
- Agnew, R.(1985). A Revised Strain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Vol. 64 No. 1, pp. 151-167.
- Agnew, R.(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Vol. 30 No. 1, pp. 47-88.
- Agnew, R.(2001).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Specifying the Types of Strain Most Likely to Lead to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8 No. 4, pp. 319-361.
- Agnew, R. and Brezina, T.(1997). Relational Problems with Peers, Gender, and Delinquency. *Youth and Society*, Vol 29 No. 1, pp. 84-111.
- Agnew, R. and White, H. R.(1992). An Empirical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Vol. 30 No. 4, pp. 475-499.
- Agnew, R, Brezina, T., Wright, J. P. and Cullen, F. T.(2002). Strain, Personality Traits, and Delinquency: Extending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Vol. 40 No. 1, pp. 43-71.
- Broidy, L.(2001).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Vol. 39 No. 1, pp. 9-35.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ffmann, J. P. and Miller, A. S.(1998). A Latent Variable Analysis of Strain Theor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Vol 14 No. 1, pp. 83-110.
- Hoffmann, J. P. and Su, S. S.(1997). The Conditional Effects of Stress on Delinquency and Drug Use: A Strain Theory Assessment of Sex Differenc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4 No. 1, pp. 46-78.
- Mazerolle, P.(1998). Gender, General Strain, and Delinquency: An Empirical Examination, *Justice Quarterly*, Vol.15 No.1, pp. 65-91.
- Mazerolle, P., Burton, Jr. V. S., Cullen, F. T., Evans, T. D. and Payne, G. L.(2000).

- Strain, Anger, and Delinquency Adaptations: Specifying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 28 No. 2, pp. 89-101.
- Mazerolle, P. and Maahs, J.(2000). General Strain and Delinquency: An Alternative Examination of Conditioning Influences, *Justice Quarterly*, Vol. 17 No. 4, pp. 753-778.
- Mazerolle, P. and Piquero, A.(1997). Violent Responses to Strain: An Examination of Conditioning Influence, *Violence and Victims*, Vol. 12 No. 4, pp. 323-343.
- Merton, R. K.(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 No. 5, pp. 672-682.
- Merton, R. K.(1957).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 Moon, B. and Morash, M.(2004). Adaptation of Theory for Alternative Cultural Contexts: Agnew's General Strain Theory in South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Criminal Justice*, Vol. 28 No. 2, pp. 77-104.
- Moon, B., Blurton, D., and McCluskey, J. (forthcoming). General Strain Theory and Delinquency: Focusing on The Influences of Strain Characteristics on Delinquency, *Crime and Delinquency*.
- Paternoster, R. and Mazerolle, P.(1994). General Strain Theory and Delinquency: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1 No. 3, pp. 235-263.
- Piquero, N. L. and Sealock, M. D.(2000). Generalizing General Strain Theory: An Examination of an Offending Population, *Justice Quarterly* Vol. 17 No. 3, pp. 449-484.

ABSTRACT

General Strain and Delinquency among College Preparatory an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Moon, Byong-Ook* · Shin, Dong-Joon**

Using General Strain Theory as a theoretical framework, the present study examined factors affecting violent, property-related, and status offenses committed by college preparatory an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A series of stepwise OLS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o better understand the distinctive effects of strain, conditioning factors, and interaction factors between strain and conditioning factors on various types of delinquency. The results indicate that both parents' and teachers' use of emotional/physical punishment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Korean students' violent deviance/property-related deviance, regardless of the type of high school. It was found that negative life even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tatus deviant behaviors only in the case of college preparatory high schools.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s well as the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practices and the prevention of delinquency are discussed in the conclusion.

Key Words : General Strain Theory, Stress, Delinquency, College Preparatory and Vocational High School, Parental/Teachers' Emotional/Physical Punishment

투고일 : 9월 12일, 심사일 : 1월 2일, 심사완료일 : 2월 16일

*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University of Texas at San Antonio

**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Keimyung University